

이스탄불 문화원

## 터키 문화의 진면목을 만나는 공간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 터키. BC 900년 이래 핫티,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 우라르루, 러시아, 페르시아, 프리기아, 마케도니아, 로마, 리디아, 이오니아, 비잔틴, 셀주크, 오스만의 문명들은 터키 역사와 문명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오르한 파묵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터키에 대한 동경이 더욱 고조됐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1 터키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세팅했다.
- 2 터키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은 1007가지 넘는다.
- 3 터키 특징을 잘 살려놓은 이스탄불 문화원
- 4 한국과 터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터키사진 공모를 10월 31일까지 받는다.

2007년은 한국과 터키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6월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터키의 회전 명상춤인 '세마' (SEMA)를 선보였고,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성남국제무용제에서 세마춤 공연을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스탄불 문화원(www.turkey.or.kr)은 1998년에 문을 열었다. 한국과 터키의 우정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숫자는 3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였고, 약 1,500명이 전사했다. 터키 군인들은 한국에 올 때 정부의 명령에 따라 참전하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1만 3천 여 명은 아직도 생존해 있다고 한다. 군인들로부터 시작된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다시 살리자는 목적으로 이스탄불 문화원이 설립됐다.

이스탄불 문화원은 터키에 가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터키를 소개하고 터키 문화를 알리기 위해 터키어 강좌, 여행 터키어 강좌, 터키 문화여행 강좌, 도서관과 전시실, 문화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터키어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2억5천 명 이상이 쓰는 언어로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이 쓰인다. 문화원에서 터키어 문법, 회화를 기초·중급·고급단계로 구분해 원어민 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 한국어와 터키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해 문법적으로 90%가 유사해 3개월만 인내심을 가지면 쉽게 배울 수 있다. 최근 터키로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문화원에서 여행 시 필요한 터키



## 한국, 터키 수교 50주년 기념 터키사진 공모전

▶ 터키 문화원 주최 디지털 카메라 사진 공모전

터키를 다녀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터키 풍경과 문화에 관한 사진을 공모합니다. 심사를 통해 40 작품을 선별하여 훌륭한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 터키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제: 터키 여행  
주최: 터키 문화원  
후원: 터키 항공, 한국 사진협회, 한국, 터키 전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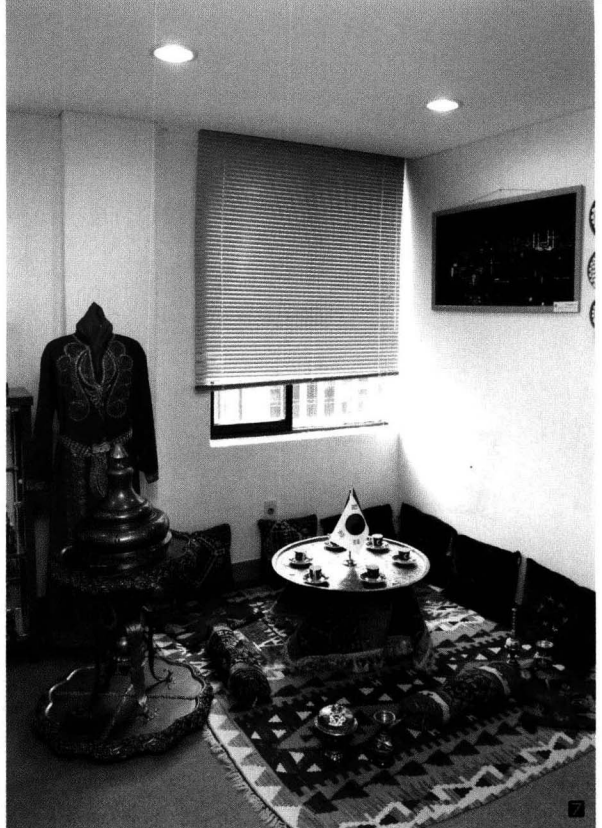
응모기간: 2007년 5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응모방법: 터키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 (www.turkey.or.kr)  
수상자 발표: 2007년 11월 15일 터키 문화원 홈페이지

응모 시 주의사항

- 1) 사진과 함께 200자 분량의 사연과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록하세요.
- 2) 사진 용량은 2MB 이상 5MB이하, JPG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3) 타 사이트나 매체에 공개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4) 당선된 작품은 터키 문화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저작권에 관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터키의 문화와 여행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5 터키와 관련된 자료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서고
- 6 터키어를 배울수 있는 어학강의실
- 7 터키에서는 우리나라 온돌방처럼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



어도 가르친다. 터키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 터키어와 터키 문화여행 강좌를 함께 들으면 더욱 유익하다. 이스탄불 마르마라 · 에게 · 지중해 지역, 중앙 아나톨리아 · 동남 아나톨리아 지역, 흑해 등 터키 문화여행 강좌가 2주 동안 열린다.

문화기행은 여행목적이라기 보다는 1년에 1~2회 관심분야 및 주제별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터키 교육체계, 미술, 역사 등 터키 유적지와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한국과 터키가 교류하고 싶은 학교, 기관,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만들어 준다.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강좌는 터키요리 강좌이다. 터키요리는 프랑스 요리와 중화요리와 함께 세계 3대 요리의 하나로 불린다. 문화원에서 터키음식문화와 식문화 예절도 배우고 터키 요리를 함께 실습한다.

문화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터키식 티파티가 열린다. 그

달에 문화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을 초청해 터키의 홍차와 다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다. 사회과학분야, 문학, 건축 등 터키와 관련된 도서 700여 권이 소장돼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터키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잡지와 신문 열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터키 문화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고, 통 ·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티파티를 대신해 라마단 기간인 10월 5일 금요일에 라마단 저녁식사를 계획했다. 터키인들은 라마단 기간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외에도 모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 평소 터키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터키라는 나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다. 신청은 전화(02-3452-8182)로만 가능하다. ☎

에르한 아타이 이스탄불 문화원장

## ‘여유’가 필요한 한국인

1997년 서울대학교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2000년부터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르한 아타이' 문화원장. 문화원장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터키가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지 않느냐, 터키 사람인데 피부색이 왜 까맣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반대로 터키지역에서 한국은 신비로운 나라라고 한다. 문화원장은 한국어 실력이 꽤 유창하다. "터키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라면 '여유'라고 봅니다. 터키에 가면 사원이나 공원마다 찻집이 있어요,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누릴 수 있죠. 한국은 차를 마시려면 찻집에 들어가야 해요. 너무나 현대적인 공간을 누리지만 답답합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삶인데 목적과 수단,의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문화는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문화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군다면 고칠 필요가 있지요.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화는 현대인들의 노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